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0월 28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1장 31-36절

설교제목 :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우리의 삶에는 **부당한 고난**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님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부당함을 가장 잘 노래한 **시편이 73편**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유대인들을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31절) 이로 인해 예루살렘이 몹시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란함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26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갑작스런 소동이 발생하자, 그곳의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32절) 왜냐하면 당시 로마령의 속주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소요에 대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그 곳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히 백부장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함께 달려 내려갔습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의 갑작스런 출현에 유대인들은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은 소동의 중심이 되었던 바울에게로 가까이 가서, 두 쇠사슬을 가지고 꼼짝할 수 없도록 바울을 결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33절) 그리고 천부장은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누구이며, 그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합니다. 천부장의 질문에 유대 군중들은 바울의 죄목에 대하여 큰 소리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34절) 이러한 중구난방의 모습은 충동된 군중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자신의 요새로 데려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에 바울이 이르자,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들어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성난 유대 군중들은 **바울을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군사들을 뒤쫓았던 것입니다.(35절)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은 참으로 부당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없이 유대인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부당한 매맞음과 부당한 결박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 대개의 경우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생겨납니다. 특히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이러한 불의한 고난이라면, 더욱 우리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의한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 꼼짝없이 우리는 그 고난에 결박됩니다. 갑작스런 고난을 막을 힘이 없고 없거니와 그것을 풀어낼 힘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처럼 꼼짝없이 그 고난에 두들겨맞고 결박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삶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동일한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더욱 더 하나님의 실재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경우처럼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의 실재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시편은 수없이 이렇게 부당한 삶에 대한 탄식과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없이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비록 억울한 결박을 당하였지만, 그 억울한 결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제국의 죄수의 신분으로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억울한 결박이 없었다면 결코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목숨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고난과 결박으로 인해 그 결사대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팀 켈러는 ‘**고통에 답하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부당한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73편 27-28절에서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시73:27-28**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당한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반면에, 부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진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부당한 고난의 사슬에 묶인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우리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더욱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두 죄사슬로 결박당하였습니다. 바울이 당한 결박이 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바울이 억울한 결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결박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셨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혹시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갈등하게 하는 삶의 변수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